

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第三

출전: “역주 능엄경언해 제3·4” (세종대왕기념사업회, 1996)

또 버거 阿難아. 엇데 六入이 本來 如來藏 微妙호 眞如性고?

六根이 塵을 드리혀물 일후미 入이라.

阿難아. 곧 더 눈 쪽스익 바르뻬 잇부미 나문 눈과 잇봄괘 호 가짓 이 菩提의 바르뻬 잇부미 난 相이라.

곧 데라 호샤문 色陰中엿 누늘 바르뻬 잇부미 나 各別히 미친 곳 보물 ㄱ르치샤 眼入의 妄이 더 곧호 들 불기시니라.

그러나 누는 뿌根이오 잇부문 바르뻬물 因호야 나니 菩提性 中엔 다 幻妄이 드윳씩 이런드로 니르샤딕 호 가짓 이 菩提의 바르뻬 잇부미 난 相이라 호시니라.

불곰과 어드움과 두 가짓 妄호 드트를 因호야 보미 나 中에 이셔 이 드툼 象을 드리혀미 일후미 見性이니 이 見이 더 불ㄱ며 어드운 두 드트를 여희면 ㄱ츄매 體 업스니라.

드트를 因호야 見이 나고 根을 因호야 塵을 드리혀씩 이런드로 眼入이 잇느니 그러나 塵을 여희면 體 업스니 ㄱ히 虛妄을 알리로다.

이 곧히 阿難아. 받드기 알라. 이 見이 불곰과 어드우므로써 오디 아니 호며 根에서 나디 아니 호며 空에서 나디 아니 호니 엇데어뇨? 호다가 불고물 브터 올 단덴 어드우면 곧 조차 업스릴씩 받드기 어드우물 보디 못 호리며 호다가 어드우물 브터 올 단덴 불ㄱ면 곧 조차 업스릴씩 받드기 불곰 보미 업스리며 호다가 根을 브터 낡 단덴 받드기 불곰과 어드움괘 업스리니 이 ㄱ티 見精이 本來 제 性이 업스리라. 虛空에서 낡 단덴 알피 塵象을 볼씩 도라 와 받드기 根을 보리어니썬 쏘 空이 제 보거니 엇데 네 入에 브트리오?

받드기 불곰과 어드움과 업다 호산 말들호 니르샤딕 호다가 불곰과 어드움괘 업스면 보미 제 性이 업스릴씩 쏘 明暗을 브터 나미 곧호니 根에 나디 아니토다.

이런드로 받드기 알라. 眼入이 虛妄호야 本來 因緣 아니며 自然호 性 아니니라.

호마 브툼 덕업슬씩 이런드로 因緣 自然이 아니라 本來 如來藏 微妙호 眞如性이니 나문 다 사슬 이틀 견주라.

阿難아. 가즐비건덴 사르미 두 숲 가라ㄱ로 귀를 락이 마ㄱ면 耳根이 잇븐 전츄로 머릿 中에 소리 지스리니 耳와 잇봄괘 호 가짓 이 菩提의 바르뻬 잇부미 난 相이라.

숲 가라기 本來 소리 업스며 귀 本來 드로미 업거늘 거즈리 서르 感觸호씩 [感은 뒤울 씨라.] 이런드로 머릿 中에 소리 짓느니 耳入의 妄이 다 이 곧호니라.

모로매 숲 가라굴 브터 가즐비샤문 물잇 소리 本來 업거늘 거즈리 感觸을브토물 불기시니 感티 아니 호며 觸디 아니 호면 더와 이왜 괘외호리니 如來藏 本來 그런 眞實호 微妙]리라.

귀 이부문 마고물 因호며 뿌디 잇부문 니규물 因호매 니르리 妄이 눈 잇봄 호 가질씩 이런드로 바르뻬 나다.

例로 니르시니라.

動과 靜과 두 가짓 妄호 드트를 因호야 드로미 나 中에 이셔 이 드툼 象을 드리혀미 일후미 듣는 性이니 이 드로미 더 動과 靜과 두 드트를 여희면 ㄱ츄매 體 업스니라.

귀 動과 靜과 브터 드롬 나미 누니 불곰과 어드움과 브터 봄 나미 곧호니라.

이 곧히 阿難아. 받드기 알라. 이 드로미 動과 靜과로서 오디 아니며 根에서 나디 아니 호며 空에서 나디 아니 호니 엇데어뇨? 호다가 靜을 브터 올 단덴 動호면 곧 조차 업스릴씩 받드기 動을 듣디 못호리며 호다가 動을 브터 올 단덴 靜호면 곧 조차 업스릴씩 받드기 靜을 아로미 업스리며 호다가 根을 브터 낡 단덴 받드기 動과 靜괘 업스리니 이 곧히 듣는 體] 本來 제 性이 업스리라. 호다가 空에서 낡 단덴 드로미 이시면 性이 이러 곧 虛空이 아니어니썬 쏘 虛空이 제 듣거니 엇데 네 入에 브트리오?

드로미 이시면 性이 이다 ㅎ샤문 드로미 이시면 性 이쇼미 이로물 니르시니라.

이런드로 받드기 알라. 耳入이 虛妄 ㅎ야 本來 因緣 아니며 自然 ㅎ 性 아니니라. 阿難아. 가즐비건댄 사르미 고흔 ㅁ이 畜 ㅎ야 畜호미 오라 잇부미 일면 고 안해 ㄷ 觸 이쇼물 드러 觸을 因 ㅎ야 通過 마곰과 의 虛 ㅎ며 實호물 分別 ㅎ며 이 곤히 모든 香과 臭氣에 니를리니 [臭는 더러운 내라.] 고과 잇봄괘 ㅎ 가짓 이 菩提의 바르빠 잇부미 난 相이라.

畜은 氣分을 드리헐 씨라.

초미 畜을 因 ㅎ야 이실 썩니언뎡 畜디 아니 ㅎ면 本來 업스니 鼻入의 ㄷ이 다 이 곤 ㅎ니 나뵤
쁘들 알폴 견주라.

通過 마곰과 두 가짓 妄塵을 因 ㅎ야 드로미 나 中에 이셔 이 드틀 象을 드리헐물 일후미 만는 性이니 이 마토미 더 通過 마곰과 두 드트를 여회면 ㄷ츠매 體 업스니 받드기 알라. 이 마토미 通 ㅎ며 마고모로 셔 오디 아니 ㅎ며 根에서 나디 아니 ㅎ며 空에서 나디 아니 ㅎ니 엇데어뇨? ㅎ다가 通을 브터 ㄹ 단댄 마 ㄷ면 마토미 업스려니 엇데 마고물 알며 ㅎ다가 마고물 因 ㅎ야 이슌 단댄 通 ㅎ면 마토미 업스려니 엇 데 香과 臭와 等의 觸을 發明 ㅎ며 ㅎ다가 根을 브터 ㄹ 단댄 받드기 通過 마곰괘 업스려니 이 ㄷ티 만는 機 | 本來 제 性이 업스려라. ㅎ다가 空을 브터 ㄹ 단댄 이 마토미 제 받드기 두르헐 네 고흔 마트려니 썩 空이 제 마토미 잇거니 엇데 네 入에 브트리오?

ㅎ 낫도 實 ㅎ ㅅ업도다.

이런드로 받드기 알라. 鼻入이 虛妄 ㅎ야 本來 因緣 아니며 自然 ㅎ 性 아니니라. 阿難아. 가즐비건댄 사르미 혀로 입시우를 할하 니기 할하 잇브게 ㅎ면 그 사르미 ㅎ다가 病 ㅎ면 ㅅ 마시 잇곡 病 업스 사르문 저기 ㄷ 觸이 이시리니 들며 ㅅ를 브터 이 舌根을 나토디위 ㅁ디 아니 ㅎ 時節엔 淡 性이 상네 잇느니 [淡은 맛 업슬 씨라.] 혀와 잇봄괘 ㅎ 가짓 이 菩提의 바르빠 잇부미 난 相이니라.

입시우리 ㅅ며 ㄷ 거시 아니어늘 잇부를 因 ㅎ야 거즈리 이실씨 이런드로 ㅁ디 아니 ㅎ 時節 엔 淡 ㅎ 性이 상네 잇느니 舌入의 ㄷ이 다 이 곤 ㅎ니라.

들며 ㅅ과 淡 ㅎ괘 두 가짓 妄 ㅎ 드트를 因 ㅎ야 아로미 나 中에 이셔 드틀 象을 드리헐물 일후미 맛 아는 性이니 이 맛 아는 性이 더 들며 ㅅ과 淡 ㅎ괘 두 드트를 여회면 ㄷ츠매 體 업스니라. 이 곤히 阿難아. 받드기 알라. 이 ㄷ티 ㅅ며 淡호물 맛 보아 아로미 들며 ㅅ ㅁ로셔 오디 아니 ㅎ며 淡을 因 ㅎ야 잇디 아니 ㅎ며 ㅅ 根에서 나디 아니 ㅎ며 空에서 나디 아니 ㅎ니 엇데어뇨? ㅎ다가 들며 ㅅ ㅁ로셔 ㄹ 단댄 淡 ㅎ면 아로미 업스려니 엇데 淡을 알며 ㅎ다가 淡을 브터 ㄹ 단댄 들면 곧 아로미 업스려니 ㅅ 엇데 들며 ㅅ 두 相을 알며 ㅎ다가 혀를 브터 ㄹ 단댄 받드기 들며 淡 ㅎ괘 ㅅ 드트리 업스려니 이 맛 아는 根이 本來 제 性 이 업스려라. ㅎ다가 空에 ㄹ 단댄 虛空이 제 맛 보논디라. 너의 이비 아로미 아니어니 썩 ㅅ 空이 제 알아 니 엇데 네 入에 브트리오?

알꺾 實 업수물 견주라.

이런드로 받드기 알라. 舌入이 虛妄 ㅎ야 本來 因緣 아니며 自然 ㅎ 性 아니니라. 阿難아. 가즐비건댄 사르미 ㅎ ㄷ 소노로 더운 소내 다히면 ㅎ다가 ㄷ 勢 | 하면 [勢는 양지라.] 더운 거시 ㄷ닐 ㄷ고 ㅎ다가 더운 功이 이기면 ㄷ 거시 더우미 ㄷ외야 이 곤히 이 어우러 아는 觸이 여회여 아로미 ㄷ느니 ㅅ는 勢 | ㅎ다가 이 ㄷ 단댄 잇븐 觸에 因 ㅎ니 몸과 잇봄괘 ㅎ 가짓 이 菩提의 바르빠 잇부미 난 相이라.

身入은 觸에 ㅅ ㅎ니 그러나 觸이 제 性 업수미 두 소니 ㅅ과 더우괘 서르 ㅅ거 들히 一定 ㅎ 勢 업듯 ㅎ니 ㄷ히 그 ㄷ을 알리도다.

소니 제 觸디 ㅁ ㅎ야 어우로물 因 ㅎ야사 觸을 알씨 이런드로 니르샤디 어우러 아는 觸이라 ㅎ시니라.

어우로미 제 어우디 ㅁ ㅎ야 여회요물 因 ㅎ야사 어우로물 알씨 이런드로 니르샤디 여회여 아 로미 ㄷ느니라 ㅎ시니라.

ㅅ는 勢 | ㅎ다가 이다 ㅎ삼들 ㅎ 니르샤디 더우니로 ㄷ 게 ㅅ거 ㄷ니로 더우물 일에 ㅎ 씨니 ㅅ 잇븐 觸 ㅅ르미라.

여희음과 어우름과 두 가짓 妄塵을 因하여 아로미 나 中에 이셔 이 드툼 象을 드리혀물 일후미 知覺性이니 이 知覺體 더 여희며 어우름과 어긔며 順흠과 두 드트를 여희면 只츄매 體 업스니라. 이 곧히 阿難아. 반드기 알라. 이 覺이 여희며 어우루므로서 오디 아니 흥며 어긔며 順호므로 잇디 아니 흥며 根애서 나디 아니며 空애서 나디 아니 흥니 엇데어뇨? 흥다가 어웁 時節에 웁 딛댄 여희면 반드기 흥마 업스려니 엇데 여희요물 알리오? 어긔며 順흔 두 相도 쏘 이 곧 흥니라. 흥다가 根을 조차 낱 딛댄 반드기 여희며 어울며 어긔며 順흔 네 相이 업스려니 네 모미 아로미 本來 性이 업스리라. 반드기 空애서 낱 딛댄 空이 제 알어니 엇데 네 入에 브트리오?

이런드로 반드기 알라. 身入이 虛妄하여 本來 因緣 아니며 自然 흥 性 아니니라.

阿難아. 가즐비건댄 사르미 잇브면 즈울오 자물 니기 흥면 곧 썩야 드툼 보안 스랑흥고 스랑호물 일헌 니조미 드외느니 이 顛倒흔 生과 住와 異와 滅왜니 드리혀 니겨 가온딕 가 서르 넘디 아니 호물 닐오딕 意의 아논 根이니 意와 잇봄괘 흥 가짓 이 菩提의 바르며 잇부미 난 相이라.

意入은 스랑하여 아로매 主흥고 스랑하여 아로몬 썩며 자매 낱썩 이런드로 줌 썩요물 브터 불기시니라.

보아 스랑호미 生이오 일허 니조미 滅이어든 住와 異와는 스시에 잇느니라.

흥마 보아 스랑흥다가 도로 일허 니조물 이를 닐온 顛倒 이라.

妄흥 드트를 드리혀니겨 가온딕 意根에 가 前念 後念이 次第로 서르 니슬썩 이런드로 니르샤딕 서르 넘디 아니타 흥시니 이 意入의 相이라.

生과 滅와 두 가짓 妄塵을 因하여 아로물 모도아 中에 이셔 안헛 드트를 드리혀 가져 보며 드로미 流의 문 미출 짜해 逆流호물 일후미 아논 性이니 이 아논 性이 더 썩며 자며 生과 滅와 두 드트를 여희면 只츄매 體 업스니라.

— 15나1행까지 —